

5월 27일 113번 환자 (보성60대) 15일간 행정 삼성서울병원서 14번 환자 접촉 ↓ 심야고숙 - 자가용 이용 (광주광천터미널) 보성자택 귀가	28일 보성 직장 출근 (직원 13명)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법 조사 (조사실 인력 6~7명·3시간)	30일 고흥군 동강면 음식점서 저녁식사	31일 성당 미사 참석 (200여명 접촉)	6월 1일 광주변호사 사무실 방문 순천지청 조사실 (5시간 30분 조사)	2일 보성 직장 출근	5일 부인 삼성서울병원 진료	6일 여수서 조카 결혼식 (친인척 17명 하객 200여명 접촉)	7일(일) 성당 미사 참석 ↓ 오후 2시 전남대병원 이송	8일 1차 음성판정	10일 확진 판정
---	---------------------------------	--	---------------------------------	-----------------------------------	--	-----------------------	---------------------------	---	---	----------------------	---------------------

보성 확진자 750여명 접촉 '슈퍼 전파자' 우려

광주·순천·여수·보성 돌며 종교 행사·결혼식 참석 등 활동
정부·지자체 대응체계 구멍...메르스 전국 확산 주말이 고비

관련기사 2·3·4 면

전남에서 첫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메르스 대응체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이 수행한 1차 검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통보 이후 전남도와 보성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확진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과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가 4일에서 최대 14일까지라는 것을 감안, 메르스 감염자 확산 여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 확진자, 접촉자 750명 넘어=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 A(보성·64세)가 지난 7일 격리 전까지 총 750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째 확진자(35·5월30일 확진)와 접촉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 직장에 출근하고 결혼식·종교행사·검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던 A씨는 보성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이던 지난 7일에서야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오후 6시께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했다.

◇안일한 대응...화 키웠다=확진자 A씨가 격리되기 전까지 수백명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전남도, 보성군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다.

광주·전남 메르스 현황

(11일 20시 현재)
확진 환자 1명 (보성 60대)
광주 ... 격리대상 19명
(자택 16·일상 3명)
전남 ... 자택격리 21·입원 2명
(※보성 확진 접촉자 제외)

전국 감염 122·사망자 10명
의심 2919·격리 3805명
격리 해제 955·퇴원 4명

정부는 우선 A씨가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지 무려 11일이 지나서야 전남도에 통보했다. 때늦은 '지각 통보'는 정부가 지난 7일까지 메르스 발생·경유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A씨가 격리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전남도와 보성군의 조치도 안일했다.

보성군은 전남도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뒤늦게 격리에 들어갔다.

음성으로 판정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의 1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1일 오후 8시 현재 전국 메르스 환자는 122명까지 늘었으며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신부도 포함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응급실 밖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날 83년 환자(65)가 사망해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윤현석·김형호기자 chadol@



보성주민 "불안해요" 메르스 확진환자가 보성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11일 오전 보성읍의 한 상점 주인이 마스크를 쓴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준금리 1.5%
초 저금리 시대
메르스 경기위축 선제 대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관련기사 14면>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다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이례적인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 2분기 경기회복세의 확산 또는 부진을 판가름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섬에 따라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국회의원 선거구 시·군·구 분할 예외적 허용 검토

인구하한선 미달 광주 동구 북구와 합쳐져 유지될 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현행법에서 제한된 국회의원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광주 동구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면 인근의 북구와 합쳐

지면서 동·북갑, 북을, 북 병 등 3개의 지역구로 분할, 광주시의 국회의원 정수 8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시·군·구 분할을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정개혁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도시의 시·군·구 분할에 대해 소위 위원들이 공감을 이뤘다"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광주 동구의 경우, 구간 경계조정이 아

닌 인근 지역구인 북구나 남구와선거구가 합쳐진 뒤,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분할이 이뤄져 현재의 광주 국회의원 정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용대 체육관 이용대가 뜬다

D-21
UNIVERSIADE GWANGJU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UNIVERSIADE GWANGJU 2015

2015, 광주

170여개국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 아시안항공, SAMSUNG, BLACKYAK, 롯데정신요리, 광주은행, HYUNDAI, L.F. FLYING, LG, 서울신문

Official Partner: ...

Official Sponsor: ...

기간 및 장소: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21개(정식13개/선택8개), 170여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기계체조, 농구, 다이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

선택종목: 골프,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